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은 매출증대와 발생한 매출의 조기 대금회수 등을 위해 여러 가지 거래방법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매출에누리의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매출에누리는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시점부터 매출가액의 일부를 감액해주거나 판매물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의 불량 · 파손 등의 이유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5에서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매출에누리는 바용의 발생이 아닌 매출의 조정항목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회계상으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실무상으로는 매출에누리가 발생되면 해당 금액을 매출에누리 계정으로 반영한 후 기말결산시에는 매출에누리 계정 총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만을 매출액으로 반영하면 된다. 즉, 기말 결산시 매출에누리계정의 차변잔액을 매출계정의 차변에 대체하게 된다.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를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매출에누리는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는 매출에누리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급가액에 매출에누리를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발생한 에누리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감액을 수반시키게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① 거래시점부터 감액해주는 경우

(개당 100원짜리 제품을 12개 판매하면서 10개 대금만 받기로 한 경우)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② 제품판매후 불량발생하여 감액하기로 한 경우

▶ 제품판매시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 제품불량에 따라 매출에누리 인식

차) 매출에누리	200	대) 매출채권	220
부가가치세예수금	20		

▶ 결산시

차) 매출	200	대) 매출에누리	200
-------	-----	----------	-----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상으로 매출할인도 매출에누리와 같이 상품, 제품의 총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의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11)’고 하였으므로 매출할인액은 이자비용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도 2007년부터는 매출할인을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매출에누리와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① 판매시점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② 회수시점(조기수금에 따라 할인)

차) 현금	1,045	대) 매출채권	1,100
매출할인	50		
부가세예수금	5		